

책속에 나뉜 108 바위부처님

'한국의 마애불' 이태호 지음



백제의 미소로 유명한 충남 서산 마애삼존불. 우리나라 마애불의 원형을 보여주는 대표적 유적이다. 6세기 후반기의 조성된 이 마애불은 강건하면서도 세련된 백제 불상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전해 준다. 이 같은 마애불은 전국에 200여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술사학자 이태호(전남대) 교수가 7년여 동안 전국의 마애불을 답사하고 쓴 <한국의 마애불>(다산출판사)은 우리나라 마애불을 한눈에 친견할 수 있는 역작이다.

이 답사에는 사진작가 유남해 씨와 이경화 씨가 함께했다. 이들이 글과 사진으로 모셔온 마애불은 북한의 대표적인 마애불로 손꼽히는 내금강 묘길상을 비롯해 서산 마애삼존불, 문경 봉암사 마애불상, 경주 남산 신선암 마애보살상 등 108기다.

지은이는 마애불에 대해 "자연에 거스르지 않고 신앙과 예술을 조화시켰기 때문에 한국문화의 특성이 가장 뚜렷하게 반영된 문화유산"이라며 "바위를 다듬는 기법 면에서 한국적 조형과 미학을 잘 보여 준다"고 말한다. 마애불이 독립된 부조나 환조의 석조불상과 함께 우리나라 조각예술의 꽃이라는 주장이다.

7년간 전국 답사한 역작 한국적 조형미학의 원형

6세기 전후에 조성되기 시작한 마애불은 8세기 신라에서 화려하게 꽃피었다. 남산 칠불암의 마애불상군과 신선암 마애보살상, 용장사지 마애불좌상 등의 조각미는 신라불교문화의 정점을 보여준다. 고려시대에는 마애불이 미륵불로 정착되면서 보다 더 다채로워진다. 그레도 고려 마애불의 백미는 17.7m이고, 내금강 묘길상 마애불은 좌상이면서도 15m에 이른다. 이처럼 큰 마애불을 조성한 것에 대해 지은이는 미륵부처의 크기가 160척이라는 <관불삼매해경>의 영향이라고 분석한다.

우리 나라의 마애불은 시대에 따라 형식을 달리했지만, 바위를 변형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불보살상을 조성했다는 점이 큰 특징. 조각



충남 서산 마애불.

의 계파연구나 시대연구에 가장 귀중한 자료가 되는 마애불은 불상연구에 있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료로서 그 가치 또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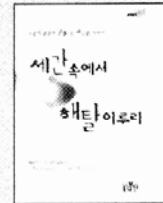
지은이는 마애불의 미학을 "이상화한 부처의 고정된 형상이 머무르지 않는 데 있다"고 말한다.

때로는 어린이 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인자한 표정으로, 때로는 목에 힘을 주어 권위주의적 모습으로, 때로는 수더분한 시골아저씨 같은 편안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모습을 나타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값 4만5천원.

김종근 기자 gajma@buddhapa.com

일상의 삶이 곧 신행인데...

'세간속에서 해탈 이루리' 이종린 지음



부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지키고 따르는 일은 시간과 장소에 한정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불자들은 사람이거나 특정한 공간에서만 신행을 할 뿐 생활 속에서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다. <세간 속에서 해탈 이루리>(불광)는 바로 그러한 신행의 오류를 지적해 준다. 그렇다고 이 책이 교과서적인 신행지침서는 아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 생활이 곧 신행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일깨워 준다. 이런 암시가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다.

지은이는 소아과의를 운영하고 있는 이종린 씨. 그는 지하철 안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어느 중학생의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이 설한 원망과 분노에 대해 고민하며 우리 못한 점 모두 덮어 두고 정법의 길을 가자고 말하고, 수명을 통해 무상을 이야기하고 발심할 것을 강조한다. 이밖에도 지은이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주제로 생활 속에서의 깨달음 이야기를 펼친다. 값 5천원. 김종근 기자

중생과 부처 하나되는 수인법문

'티베트 밀교 무상심요법문'



"나타난 것은 마음, 공이란 것도 마음, 밝게 통달함도 마음, 미란(迷亂)도 마음이며, 생도 마음 멀도 마음이라. 일체의 더하고 덜함이 모두 마음임을 체득하길 원하옵나이다."

신간 <티베트 밀교-무상심요법문>(운주사)의 마지막에 실린 독송용 대수인 법문의 한 대목이다. 티베트 밀교의 정수를 담고 있는 대수인(大手印) 법문들을 번역 해설하고 있는 이 책은 대수인의 의미에서부터 밀교의 여러 수행체제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역자는 박건주(전남대 강사) 씨.

이 책에는 여러 대수인법문 가운데 마음 수행의 길에서 항상 수지하면서 수행의 길잡이로 삼을 수 있는 필만한 법문만을 가려 뽑아 우리말로 옮겼다. 값 8천원. 김종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책방 역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금강경역해	각 목	불광
2	불교수행요론	박현	바나리
3	능가사자기	박건주	운주사
4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	효림
5	선방일기	지허	여시아문
6	초기불교개역사	김재영	도피안사
7	영가천도와 49재	박연진	민족사
8	보편사라진다	김열권	정신세계사
9	붓다는 없다	스티븐 미켈	이론과 실천
10	꽃담	해만	시공사

도서 안내: (02)737-0695

여시아문 인터넷 도서주문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www.yosiamun.com

죽음 알면 참삶 보인다

'메멘토 모리...' 김열규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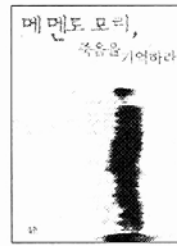
"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물구 참선' 즉 물구나무 자세로 삼매에 들곤 했는데, 죽을마져 그 상태에서 맞았다. 그러나 열반한 지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였다. 넘어뜨려도 까딱도 하지 않고 승곳처럼 꼬장꼬장했다. 소문을 듣고 승이 달려와 '너 또 그 장난이구나'며 살짝 밀자 그제서야 바로 누웠다"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궁리는) 의미 심장한 미소를 짓게 만드는 이런 선가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

죽음에 대한 태도는 문화마다 다르다. 불교에서는 낡은 옷을 갈아입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긴다. 그래서 선

사들은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인다. 죽음을 삶의 막다른 골목이자 돌연한 단절로 보지 않고, 새것과 묵은 것의 교환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 다루지는 죽음이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와 다르다. 오히려 그 반대라 할 수 있다. 책 제목이 '죽음을 기억하라'로 붙여진 이유에서도 그 의미로 알 수 있다. 이 책은 쓴 김열규(69) 인제대 교수는 들머리에서 "죽음을 잊으면 삶도 잊어진다"고 강조한다. 죽음에 대해 제대로 눈을 떠야 삶이 가치도 높아진다는 얘기다. 결국 이 말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되묻는 말이기도 하다. 죽음을 항상 생각함으로써 죽음



으로부터 버림받지 말자는 것이다. 즉 '우리는 잘 죽고 있는가'란 문제의식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지은이가 보기에 현대의 죽음은 만신창이다. "죽음은 사고, 사건, 사태의 일부가 되고 말았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죽음이다. 죽음은 정말 천해지고 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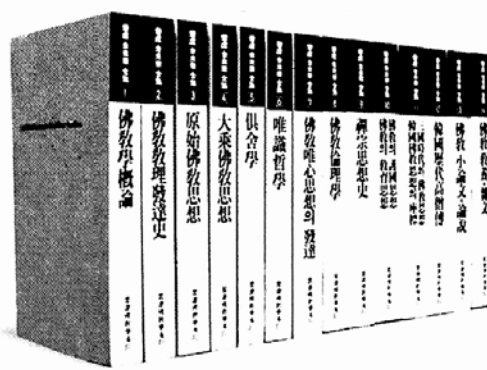
이 책은 동서의 죽음론을 고찰하고 있지만, 죽음을 죽음답게 대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도 남무해져버린 이 시대에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우는 일종의 잠언집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값 1만원. 김종근 기자

雷虛金東華全集

뇌허 김동화 박사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여 박사님께서 일생에 걸쳐 이루신 연구 결과를 총 결집, <雷虛金東華全集>을 출판하였습니다.

300질 한정판

1. 佛敎學 概論
2. 佛敎敎理發達史
3. 原始佛敎思想
4. 大乘佛敎思想
5. 俱舍學
6. 唯識哲學
7. 佛敎唯心思想의 發達
8. 佛敎倫理學
9. 禪宗思想史
10. 佛敎의 護國思想 · 佛敎의 敎育思想
11. 三國時代의 佛敎思想 · 韓國佛敎思想의 座標
12. 韓國歷代高僧傳
13. 佛敎小論文 · 論說
14. 佛敎敎養 · 雜文



전집출판 기념회및 봉정식

일시 : 2001년 11월 16일(금) 오후 4시 30분
장소 : 동국대학교 상록원 (서울 중구 필동3가.)
안내 : 054-770-2506(불교사회문화연구원)

뇌허 불교학술원
원장 전관응

*화환은 사절합니다.